

「니벨룽겐의 노래」에 있어서 영웅전설의 인물 <디트리히 폰 베른>

許 昌 雲
(獨文科 副教授)

目 次

- I. 서 론
 - II. 주 인물론
 - (1) <디트리히>와 게르만족 유산
 - (2) “반인격”으로서의 <디트리히>와 “전형”으로서의 <하젠>
 - (3) 북수와 비극의 여왕 <크림힐트>
 - III. <디트리히>의 행적—부르군드족과 <디트리히>의 호감
 - IV. <디트리히>의 성격—자기분위주의와 타산적 소극성
 - V. 결 론—<하젠> : <크림힐트> : <디트리히>
- 참 고 문 헌
독 문 요 약

I.

게르만 민족의 영웅전설(Germanische Heldensage)¹⁾에 나타나는 특출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선 <지그프리트>(Siegfried)와 <디트리히 폰 베른>(Dietrich von Bern)을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형성된 이유는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는 많은 영웅문학에서 주인공으로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압도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설(Sage)이나 동화(Märchen) 및 신화(Mythos)²⁾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낭만주의시

- 1) Klaus von See, Germanische Heldensage. Stoff. Problem. Methode, Wiesbaden 1981, S.9ff. 참고
일반적으로 게르만민족의 영웅전설이라고 하면 문학사적으로 보아서 게르만민족의 대 이동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이야기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약 375년경 흉노족의 유럽침입에서부터 568년 랑고바르드족의 북이탈리아 점령까지의 약 2세기에 걸친 기간동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에 관한 문학작 시술들은 「영웅전설」이라는 특수개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단순한 「전설」(Sage)이라는 별개의 개념을 도입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
- 2) 여기서 우리는 상기한 개념들의 정의를 K.v. See의 견해에 따라 분명히 규정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 각주 1)에서의 「영웅전설」의 일반적 정의에 반해서 「전설」이란 개념은 특정한 지역의 인물권에 비교적 밀접하게 구속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영웅전설」과 「전설」을 구별시켜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영웅전설」이 비교적 강하게 특정한 시대에 구속되고 있는 반면에 「전설」은 특정한 장소에 강하게 얽매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양개념의 공통성으로서 양자가 공히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직결되어서 다소간의 변용은 있다 손치더라도 언제나 역사적 신빙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왜냐하면 유행과 같은 비현실적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전설들도 최소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의 믿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바로 순전한 환상의 유희인 「동화」(Märchen)와 「전설」과의 다른 점이고, 멀어지기는 하나 비세속적이며 비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자 하는 「신화」(Mythos)와의 차이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개념규정은 공통모티브의 출현에 따라서는 흔들릴 수도 있다(K.v. See, a.a.O., S.14 참고).

대가 <지그프리트>를 대표적 영웅의 찬연히 빛나는 전형으로 고양시켰던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런 관점에서 인물기승은 특히 <리하르트 와그너>(Richard Wagner)의 여러 오페라 작품중에 잘 반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디트리히 폰 베른>이 중심이 되는 문학적 서술은 그 배경과 전래가 실로 다양하여 그 인물에 대한 해석도 통일적이 되기가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개관해 본다면 <디트리히 폰 베른>이란 인물은 역사상으로 기독교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테오데리히 대제>(일명 <테오도리쿠스>: Theoderich der Große)로서 잘 알려져 있고 문학속에서는 군주나 왕의 신분으로 고향을 떠나온 망명객으로 등장하고 있다.³⁾ 역사상으로는 동고트족의 왕족출신으로서 그는 454년에 출생하여 526년까지 생존하였고 471년에는 직접 동고트족의 왕이 되어 당시 <라벤나>(Ravenna)에서 집권하고 있었던 <오도아케르>(Odoaker)와 <베로나>(Verona)에서 격돌하여 승리함으로써 북이탈리아를 점령 통일한 위정자로서 유명하다. <테오데리히>를 위요한 이와같은 역사적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트족의 영웅진설의 핵심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여러 게르만민족의 전설들과 함께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상호의존적 변모를 배태하게 된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

우리가 지금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해 볼려는 인물 <디트리히 폰 베른>은 따지고 보면 「니벨룽겐의 노래」(Nibelungenlied)의 주축이 되는 소재들, 예컨대 지그프리트전설(Siegfriedsage), 브룬힐트전설(Brühildsage), 부르군드전설(Burgundensage)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전래된 디트리히전설(Dietrichsage)의 주인공으로 부가되어 있었는데 13세기경에 이르러 불출세의 한 익명작가에 의해서 중세 독일영웅문학의 정수 「니벨룽겐의 노래」란 서사시속에 수용되면서 그에겐 시공을 초월하는 문학적 좌표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웅서사시(Heldenepos) 「니벨룽겐의 노래」에서 <디트리히>가 차지하고 있는 문학적 기능과 역할, 나아가서 그의 성격묘사 및 인물해석을 밝혀 볼려는 데 이 연구의 주관심사가 놓여진다고 하겠다.

역사와 전설을 통해서는 기독교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통치자로서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는 고귀한 신분의 망명객으로서 고향을 떠나 있게 되는 <디트리히 폰 베른>은 대별해서 3가지 유형의 문학적 소재군(Stoffkomplex)에 속해 있다. 역사적—영웅적 서사문학으로

3) 9세기 초반에 풀다(Fulda)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승에 의해 한 기도서 앞장 표지내면에 우연히 수서되어 후세에 전래하게 된 「힐데브란트의 노래」(Hildebrandslied)속에 언급되는 <디트리히>도 휘하의 용사 <힐데브란트>와 함께 <오도아케르>의 증오를 피해서 동쪽으로 망명길에 나섰던 인물이다.

4) 특히 「디트리히전설」을 예로 든다면 375년에 사망한 고트족의 왕 <에르마나리히>(Ermanarich)와 453년에 사망한 흉노족의 왕 <아틸라>(Attila: 「니벨룽겐의 노래」에서는 Etzel로 표기되고 있음) 그리고 493년에서야 비로소 북이탈리아 제국을 건설하고 526년에 사망한 <테오도리쿠스>(일명 <테오데리히>)등 시공을 달리하고 있는 인물들이 서로 동시대의 같은 세대로 등장하고 있다(K.v. Sec, a.a.O., S.11 참고).

는 「Dietrichs Flucht」, 「Rabenschlacht」, 「Alpharts Tod」 등이 있고 동화적—모험문학으로
는 「Eckenlied」, 「Virginal」, 「Sigenot」, 「Goldemar」, 「Laurin」을 들 수 있으며, 작품속에서
니벨룽겐소제에 속하는 영웅들과 직접 대결하고 있는 서사문학으로서는 「Rosengarten」과
「Biterolf und Dietleib」이 전래되고 있다. 이처럼 등장무대가 다양하고 소속작품이 상이한
<디트리히>의 인물상은 혼미스러운 정도로 다채롭고 불투명하기 조차하다. 예컨대 13세기
후반경에 생겨난 「Dietrichs Flucht」⁵⁾에서의 <디트리히>는 자기 부하들을 위기에서 구출하
기 위해서 결정적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전장에서 물러서야 하는 비운의 장수로 등장
하여 인도주의적이고 신의에 충만한 기사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니벨룽겐의 노래」에
있어서는 숙명적으로 대결에 임하게 되는 원수의 양 진영간에 위치하여 어느쪽으로도 일방
적인 편들기를 주저하는 듯하면서도 두 번이나 전선을 교체하는 극적 장면을 연출하다가
끝내 가공할 비극을 충분히 저지시킬 수도 있는 초인적 능력을 한번도 재 발휘해 보지도 못
하고 비겁할 정도로 소극적 태도를 파국의 마지막 순간까지 견지하는 단독자로 남게 된다.

이와같은 <디트리히>의 일관성을 결여한 투명하지 못한 행동들의 심층분석없이 표면적
인상에만 정도되어, <디트리히>는 평화의 이상적 군주로 평가되기도 하고,⁶⁾ 때에 따라서는
참된 바에주의적 기독교 정신의 실천가로 칭송되기도 한다.⁷⁾ 이처럼 중세 독문학상에는 <디
트리히>에 관한 인물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니벨룽겐의 노래」에 투영되어
있는 디트리히-상에 관한 연구들은 상기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대별지
워진다.

<디트리히>를 기독교적 기사적 이상형(Idealfigur)으로 서술하고 있는 Nagel의 연구가⁸⁾
있는가하면 그를 기독교적 영웅적 이상형으로 해석하고 있는 Weber의 저술도⁹⁾ 있다. 반면
에 이상과 같은 <디트리히>의 긍정적 인물평가를 그 근원에서부터 뒤흔들어 놓고있는 Ho-
racek의 주장¹⁰⁾이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가하면,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에서 봉건제도의 폐
습을 지양할 미래지향적 인물로 <디트리히>를 해석하고 있는 Ihlenburg의 입장도¹¹⁾ 있는데
이는 변증법적 사고와 무관한 견해들을 대조적으로 선명히 노출시켜주는 의미에서 일고의

5) 연명 *Buch von Bern*이란 이름으로 *Rabenschlacht*와 함께 중복서사시(Doppelepos)로서 전래되고
있다. 간행본(Ausgabe): E. Martin, *Deutsches Heldenbuch*, Bd. II, Berlin 1866(Neudruck;
Zürich 1967).

6) A. Heusler, *Nibelungensage und Nibelungenlied, die Stoffgeschichte des deutschen Heldenepos*,
Dortmund ⁵1955, S. 106 참고.

7) Gisela Plötzender, *Die Gestalt Dietrichs von Bern in der deutschen Dichtung und Sage des
frühen und hohen Mittelalters*, Diss. (masch.), Innsbruck 1955, S. 213 참고

8) Bert Nagel, *Das Dieterichbild des Nibelungenliedes*, in: *ZfdPh* 78 (1959) S. 258-268; 79 (19
60) S. 28-57과 B. Nagel, *Das Nibelungenlied, Stoff·Form·Ethos*, Frankfurt/M 1965, S. 250-272.

9) Gottfried Weber, *Das Nibelungenlied, Problem und Idee*, Stuttgart 1963, S. 161-170.

10) B. Horacek, *Der Charakter Dietrichs von Bern im Nibelungenlied*, in: *Fg. f. Otto Höfler zum
75. Geburtstag*, Wien 1976, S. 297-336.

11) K.H. Ihlenburg, *Das Nibelungenlied, Problem und Gehalt*, Berlin (Ost) 1969, S. 130-135.

가치를 인정해 볼만도 하다 하겠다.

II.

이상과 같은 주장들로 점철되고 있는 <디트리히>의 인물에 관한 연구사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본문분석이기에 앞으로 핵심적 세부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 보기로 하겠다.

(1) <엣젤>(Etzel)왕과 함께 최초로 언급되는 <디트리히>의 등장에서부터(1347 참조), 마지막으로 <엣젤>왕과 <힐데브라트>(Hildebrand)와 더불어 살아남게 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의 <디트리히>의 행적이나 언표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게르만적 영웅주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기사적 관점으로 보아도 모범이 될만한 이상적 성격의 요구조건에도 못지 부합될 수 없는 요인들을 <디트리히>가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적 인물평가의 척도로 가늠해 보더라도 이 인물은 옛 게르만시대의 영웅주의를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며 때에 따라서는 비굴하기조차하며 또한 기독교적 윤리에 부합되는 덕성을 지닌 이상적 기사와도 거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슈타우퍼(Staufer)왕조의 대표적 서사문학 「니벨룽겐의 노래」는 여러 장면에서 여전히 옛 영웅들의 전사적 투혼과 덕성을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이다 : <크림힐트>가 보여주는 불변의 남편사랑 : 참기 어려운 고통과 수모를 초극해서 관철시키는 강인한 복수의지, <하겐>이 보여주는 요지부동의 강직성과 니벨룽겐족다운 충성, 그리고 갈등의 기로에서 비장하게 내리는 <뉘에더거>(Rüedeger)의 숙명적 결단 : 이러한 모습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실리적 현실과는 한치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고 있기에 더욱 더 장열하고 고답스러운 인상을 준다. 특히 굽히지 않는 소신과 어연한 신의의 화신 <하겐>의 죽음은 처참한 종말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적 불가피성을 초극하는 한 의지의 끈질긴 시위인 동시에 내면적 자유의 극적 구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2) 중세는 인물을 평가하는 눈도 달라 언제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을 보았고 봉건사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기독교적 의미로 이해하였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 자아의 개발이나 개인적 덕성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예부흥기 이후부터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인문주의적 교양을 추구하는 사고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교양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집중적으로 주제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디트리히>를 일관성을 지닌 한 인격으로 간주하여 확고한 주관을 지니고 격조높은 이념을 구현하는 개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¹²⁾ <디트리히>가 마지막의 결전에 뒤늦게나마 등단함으로써

12) B. Nagel, Das Dietrichbild des Nibelungenliedes, S. 56: „In dieser als Endsieger herausgehobenen Figur des Berners erweist der Dichter die Überlegenheit der christlichen Haltung

분쟁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Nagel은 주장하고 있지만,¹³⁾ 이는 마지막 장면만을 너무 미화시킨 해시일 것이다. 총 39 모험담(Aventiure), 2379절(=련 : Strophe)로 구성되어 있는 「니벨룽겐의 노래」의 마지막 Aventiure에서의 <디트리히>의 태도는 막강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분쟁의 지지나 해결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너무 소극적이다. 만약 그가 인도주의적인 참된 의미에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차라리 대결의 초기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비극의 참상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강구했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디트리히>와 <하겐>의 무력대결이 마지막 결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잃는 혈투로 끝을 맺지 않는 이면으로부터 <디트리히>의 고귀한 인격을 유도해 낼 수도 있었으나 이런 장면은 다른 디트리히 서사문학에서도 유사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지는 <디트리히>의 일견태세는 「Eckenlied」, 「Biterolf」, 「Rosengarten」 같은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평화에 호주의’나 ‘이웃사랑’이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기독교적 배경을 운위한다는 것은 문학의 전래사를 무시한 과잉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싸움을 하지 않으려는 점,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 특유의 가치를 유도한다는 것은 너무 편협적이기 때문이다. 거듭해서 확인되는 끈질긴 자체력과 무력대결을 회피하는 것같은 진지한 자세는 이 인물 특유의 풍모를 암시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는 독일 중세문학상에 자주 등장하는 선택된 기사집단의 중심인물 아서왕(König Arthus)의 지취와 유사한 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특히 디트리히전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화적 요소¹⁴⁾는 이미 디트리히 문학 수용사의 한 특징인데 <디트리히> 자

gegenüber der altheidnischen Heroik... Der christliche Ritter überlebt den Untergang der altheroischen Welt. Die Zukunft gehört somit einer neuen und höheren Stufe der Sittlichkeit. Und dieses Neue wird umso sicherer ins Leben treten, je vollständiger die Vernichtung des Alten war”: 이 주장은 마치 <디트리히>가 세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한 것처럼 볼이하고 있는데 고차적 목표달성과 그의 결전참여는 서로 무관하다. 니벨룽겐의 열망과 <디트리히>의 공적을 인과관계에 놓으려는 논리는 너무 환상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새로운 가치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는 찾아 볼 수조차 없으며 오직 치참한 통곡과 애도만이 「니벨룽겐의 노래」의 끝을 장식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Weber 역시 Nagel처럼 <디트리히>가 마지막으로 살아 남았다는 사실에서 차원높은 어떤 윤리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G. Weber, Das Nibelungenlied, S. 146 참조).

13) B. Nagel, a.a.O., S. 263 참조.

14) 코트족의 왕 <테오데리히>의 본성 깊숙이 지옥과 악마에 관련된 신화적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전거(Belege)로서 다음과 같은 서술유형들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니벨룽겐의 노래」로 짐대성한 익명의 작가도 이와같은 <디트리히>의 편모들을 지시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다:

① 지옥행(Höllenfahrt): <디트리히>가 발을 타고 지옥으로 유괴되었다는 이야기(Die Kaiserchronik, Vers 14171 참조; ed. E. Schröder, Hannover 1893, Nachdruck Berlin 1964).

② 불을 내뿜는 호홉(Feueratem): <디트리히>가 분노할 때는 불을 내뿜는다는 이야기(Wormser Rosengarten A, Vers 363/2f. 참조; ed. G. Holz, Die Gedichte vom Rosengarten zu Worms, Halle 1893)

③ 악마에서의 출생(Teufliche Geburt): 성지자를 처형한 한 때의 과실로 교회와 불화관계에 있었는데 그 여파로 누명을 쓰게된 테오데리히 출생에 관한 이야기(Thidrekssaga, S. 412 Deutsche Übertragung von F. Erichsen, Die Geschichte Thidreks von Bern [Thulc, 2. R. 22Bd.], Jena 1924)

신도 신화나 전설적 모티브에서 유래하는 것 같은 초인적 마력을 구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을 내뿜는 호홉과 굉음을 내는 목소리, 엄청난 힘 등등 이와 같은 편린들은 「니벨룽겐의 노래」에서도 예외가 아닌바,¹⁵⁾ 이러한 맥락을 도의시하는 인물해석¹⁶⁾은 자칫하면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

〈하겐〉이 내리는 냉정한 판단들 : 〈지그프리트〉의 보름스(Worms) 도착을 환영할 때 그가 진언하는 충고에서 시작하여 신부를 찾는 구혼의 시기에 그가 담당하는 역할하며, 〈크림힐트〉를 크산텐(Xanten)으로 동반할 것을 거절하는 것을 비롯해서, 교묘히 계획된 〈지그프리트〉의 암살, 그리고 〈옛펠〉의 왕비가 된 〈크림힐트〉의 초대권을 받고 흉노땅을 향해 보름스를 출발하는 운명적 거보에 대해서 그가 취하는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표명, 흉노족의 야성에 당도한 후, 결정적 순간에 〈옛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총력전의 불가피성을 선포하는 과단성, 니벨룽겐보물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군터〉의 죽음을 초래케 하고는 스스로의 연명도 단호히 포기하는 것같은 냉혹한 자세에 이르는 그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봉건사회에서의 군신간에 이어지는 의무와 책임이란 상관관계에서 연유한다고 설명될지 모르나 그 심층적 원동력은 〈하겐〉의 투철한 결단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에서 우러나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궁정기사적 모험소설에 명멸하는 수많은 기사들의 개인적 명예나 명성에 치중하는 행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근원적으로는 자아중심적이지 아니다.

(3) 남편 〈지그프리트〉의 암살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크림힐트〉가 품는 앙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화되어 부르군드족을 흉노땅에 초대할 때쯤만 하더라도 자기의 오빠들까지 몰살시킨 정도로 엄청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녀의 오빠들은 지그프리트암살의 공모자로서 그녀를 한 번 배신하였고, 게다가 암살하수인인 〈하겐〉의 신변을 옹호까지 함으로써 또 한 번 그녀에게 원한을 사지만 결국에는 화해를 하고만다(1115 참고). 그러나 끝까지 원수로서 헤어진 〈하겐〉에 대한 복수의 불길은 꺼지지 않아, 어떻게 하든 〈하겐〉이 그녀에게서 앗아간 모든 영화에 대한 속죄의 대가를 〈크림힐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1392ff. 참고). 그러나 그것에 이르는 길은 그를 위요하고 있는 그녀의 오빠들을 그쳐서만 가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크림힐트〉의 즐기찬 원한의 불길에 의해 점진적으로 숙명의 대결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겐〉의 보호벽으로서 공동 운명체처럼 이어져 있기에 〈크림힐트〉의 절규는 더욱 애절한 것 같다 :

2104 „Welt ir mir Hagenen einen ze gisel geben,
sone wil ich niht versprechen ich welle iuch lāzen leben,
wande ir sit mine bruder und einer muoter kint.
sô rede ich ez nâch der suone mit disen helden die hie sint.“

15) 엄청나게 큰 목소리는 Str. 1987에서, 막강한 힘은 Str. 1987과 2352에서 언급된다.

16) Nagel, a.a.O., in: ZfdPh 78 (1959) S. 260 ; ZfdPh 79 (1960) S. 28, 48 그리고 Weber, a.a.O., S. 53, 57, 146, 165 참고.

(그대들이여 나에게 하겐 한사람만 인질로 내어준다면,
내 그대들 생명 앗지 않을 것을 약속하려네.
결국 그대들은 나의 오라버니, 한 어머니의 아이들이 아니겠오.
그렇다면 내 말하노니 여기모인 이 영웅들과 화해를 청하노라!)

복수행위가 게르만족의 이교도 사회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용인되었지만 기독교 윤리로 볼 때는 업연한 계율위배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기독교적 중세의 많은 서사문학속에는 이유있는 복수행위들이 “합법적”성격을 띄고 정당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로란트의 노래」(Rolandslied)에 있어서 <카알>(Karl)이 자기 조카 <게네룬>(Genelun)을 징벌하는 경우나, 「Rabenschlacht」에서 <디트리히>가 휘하의 심복들을 죽인 옛 친구 <뷔테게>(Witege)를 추격하는 장면, 조카 <칼로그레안트>(Kalogreant)의 패배에 대한 <이와인>(Iwein)의 복수, 또는 조카 <비비안쯔>(Vivianz)의 죽음에 대한 앙갚음으로 <아로펠>(Arofel)을 죽이는 <뵐레할름>(Willehalm),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트리스탄>(Tristan)의 복수 등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미하면 <크림힐트>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오라버니들에게까지 괴물 뿌리는 복수욕의 담당자가 일개 여자라는 점에서 특수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그녀를 악마같은 독부로 매도하는 부정적 평가는 여성에 대한 선입관에 책임이 있는 편파적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니벨룽겐의 노래」의 작가 역시 <크림힐트>의 무자비한 행동은 <지그프리트>에 대한 불변의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가져온 불가피한 귀결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크림힐트>의 독부설은 정녕 현대적 심리학의 번주들이 만들어 낸 독선적 주장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젠 니벨룽겐의 보화가 있는 곳은 나와 하느님 밖에 이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없노라”¹⁷⁾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크림힐트>를 무참히毆는 <하겐>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앙갚음은 <지그프리트>가 찾던 칼 발롱(Balmung)에게 복수를 호소하는 파국의 처절한 순간밖에 단 해결책은 없었으리라.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혈족까지도 죽이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참극의 주인이 된 것은 모두가 <하겐>때문인지도 모른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작가는 원천적으로 인정할 가치가 있는 남편에 대한 절개가 지주받을 만한 결과론 초래하게 되고 절절한 사랑이 가공할만한 비극의 근원으로 변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II.

흥노족의 왕 <엡켈>의 바로 곁에 자리한 잠고 왕비가 되기 위해 흥노땅에 킷발을 내디디는 <크림힐트>를 영접하는 장면에서 <디트리히>는 “her”(=Herr)라는 칭호로 불리어 진다

17) Str. 2371 „Nu ist von Burgonden der edel küneec töt,/Giselher der junge, und ouch her Gêr-nôt./den schaz den weiz nu niemen wan got unde min:/der sol dich, valandinne, immer wol verholn sîn!“

(1347). 그의 신분이나 지위는 <엣펠>의 궁성에 망명객의 신세로 기거하고 있기는하나 <엣펠>과 동급으로 사료되며 궁정내에서도 <엣펠>의 형제 <블뢰델린>(Bloedelin)은 말할 것도 없이, 어느 다른 장수들 보다는 왕에 가장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변경의 태수 <류에디거>처럼 <엣펠>에 봉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지지않고 있지만 그가 향유하고 있는 손님으로서의 특권과 예우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신의 후원자와 그의 부인이 역경에 처한다면 고틀을 그들과 같이 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지그프리트>의 원수같은 일에 일조를 주지는 할당정, 왕권의 세습왕자와 <엣펠> 휘하의 발군의 용사들이 무참히 생명을 잃고 있는 혈전에 과감히 개입하여 참상의 극대화란 막거나, 아니면 복수를 거부하고 있는 기독교적 윤리관에 투철하여 분쟁불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납득시켜줄만한 태도표명이나 양심의 갈등같은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도 같다.

같이 피를 나누는 초대손님을 환대는 커녕 오히려 남편에 대한 복수를 꾀하기 위해서 <크림힐트>가 <디트리히>의 협조를 요청했을 때 이를 사려깊게 거절하는 <디트리히>의 태도로 보면 분명히 부르군드쪽에 동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1902, 4 „Sifrit ist ungerochen von der Dietriches hant.“

(디트리히의 손에 의해서는 지그프리트의 원수 같아지지 않으리.)

그렇다고 이러한 반응을 흉노왕에 대한 파렴치한 배은망덕으로 낙인찍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역경에 처한 왕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구원하고 아무리 가망이 없는 처지에서라도 일단 다가온 위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응하는 것은 “미덕의 아버지”(vater aller tugende; 2204, 4) <류에디거>의 결단이 이미 보여주고 있듯, 중세봉건사회에서는 하나의 당위적 요청으로 인정된다.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분석하여 훨씬 후에 이루어진 <디트리히>의 구조행위에 입각하여 인품의 뛰어난 성실성 운운한다면(Weber, a.a.O., S. 166 참고)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디트리히>의 <엣펠>에 대한 보은행위는 결과적으로 사후약방문적이 되었고 부르군드 친구들에 대한 신의는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만다. 역사상으로도 <테오데리쿠스>는 <오도아케르>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배신으로 명예에 상처를 입고 있으며 「Thidrekssaga」에서는 <지구르드>(Sigurd)에 대한 그의 승리도 기만행위때문에 과소평가받기까지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멜롱겐 씨족의 전투적 우월성이 「니벨룽겐의 노래」 곳곳에서 암시되고 있으며(1354 f. 참고) 인식하지 않는 그의 관대함이 강조되기도 한다(1372 참고). 그러나 무장한 채 입성하는 부르군드기 사들을 보고 이연실색하는 <크림힐트>의 이유있는 의심에 대해서 하등의 해명도 없이 모욕에 찬 언사로 그녀를 호도하는 듯한 <디트리히>의 언행은 도저히 기독교적 발상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1748 참고). 게다가 <지그프리트>의 살인자 <하겐>의 영웅적 행적들이 <디트리히>로 하여금 공감과 친밀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여(1750 참고), 그를 비호하고 나선다면(1902 참고), 이는 분명 니벨룽겐족의 용맹스러운 영웅주의에 <디트리히>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마디로

그의 언행은 중립로선을 벗어나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의 위치는 결코 당파를 초월한 곳이 아니다.¹⁸⁾ 그의 호감은 처음에는 분명 부르군드편에 자리잡고 있다—그렇다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무력원조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그러나 마지막에는 <류에더거>처럼 직접 무장을 하고 부르군드족과 대항하게 되니, 이럴 때의 그의 진영은 분명 크림힐트편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과연 <디트리히>는 절개가 없는 기회주의자일까? <엠펔>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디트리히>는 필경 왕비 <크림힐트>의 신임도 얻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군드-군에 지금도 <지그프리트>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고 있는 여왕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눈앞에 전개될 위기를 귀찮게 준다는 것은 일종의 배신행위일 수 있다. 그는 왕비의 눈물을 보고도 동정의 질문 하나 없이, 바르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원한의 앙심이라 짐작하고는 자신의 추측을 부르군도 용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크림힐트>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녀의 원수에게 호의를 보이는 <디트리히>의 기취는 어찌면 이미 「니벨룽겐의 노래」 이전의 문학적 전통에서 유래하는지도 모른다.¹⁹⁾ 어쨌든 <디트리히>의 행동은 어떤 하나의 확고한 행동지침이나 윤리관에 좌우되기 보다는 그때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일종의 이중적 도덕관에 입각해서 취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지그프리트의 상처는 덮어 두기로 하세”(Die Sivrides wunden lāzen wir nu stēn. 1726, 1)라는 발언의 이면에는 <하겐>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과응보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디트리히>의 저의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이는 단순히 자기 개인으로서는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강조에서뿐만 아니라 (1901, 3f. 참고), 또한 자신의 휘하와 함께 이제 전개될 갈등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 타산에서도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디트리히>는 순수한 옛 영웅가의 전통에서나 볼 수 있는 당당한 영웅적 인물은 이미 아니며 그렇다고 기독교적 사랑으로 평화를 심는 기사적 이상형은 더더구나 아니다. <디트리히>의 현실적 처지나 전사적 윤리로 보아 남들이 가지 않는 여러 장면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크림힐트>가 이미 무장하고 입성하는 손님들을 출영할 때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심상치 않은 운명의 기로에서 있음을 경고 받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바로 이 배반자를 잡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게 되는데, 이 때 단도직입적으로 왕비가 찾는 인물이 바로 자기라고 고백하는

18) Nagel에 의하면 <디트리히>는 Str. 1726에서 중립진영으로의 도약을 감행하고 Str. 1981에서는 그 진영에 자발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자세를 취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피상적 관찰에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Nagel, Das Nibelungenlied, S. 250과 ZfdPh 79 (1960) S. 36; 44 참고).

19) 동일한 소재를 취급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디트리히>와 <지그프리트>의 대결이 추측을 이루고 있는 *Großer Rosengarten* 같은 것도 있고 <디트리히>가 직접 <지그프리트>를 죽이게 되어 <크림힐트>의 원수가 되지만 그녀의 복수를 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크림힐트>까지 살해하는 것도 있다(Das deutsche Heldenbuch, ed. A. von Keller, Stuttgart 1867, S. 10f.). 역사적으로 볼 때 바이에른—오지리지역의 영웅전설인물인 <디트리히>와 라인지방출신 <지그프리트>간에는 부족적인 시기와 적개심이 항존해 왔으며 <디트리히>가 <지그프리트>를 제압하는 것도 그러한 지역감정의 발로에서 각색된 문학적 허구인 것이다.

<디트리히>의 말을 들은 <크림힐트>는 정작 분노하기는 커녕 아연실색하여 그의 막강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비밀이 노출된 데 대해 부끄러워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1747ff. 참고). 게다가 <디트리히>는 자신의 주리를 확인하기는 커녕 얼토당토않게 그녀를 „vālandinne“ (1748, 4=여자마귀)라는 표현²⁰으로 치명적인 비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저돌적이며 의아스럽기조차 하다. 그와 그의 일족을 따듯이 영접하여 함께 안주하게끔 해준 <엣펠>왕에게는 터무니없이 기대에 벗어나는 행동이었으리라.

IV.

부르군드기사들의 무술시합(Turnier)에 가담하지 않도록 자기 휘하에게 당부하는 <디트리히>의 주도성은 (1874 참고) 적대적 긴장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평화주의적 의도에서 생겨났다고 보다는 오히려 경솔한 자극에 의해 앞으로 도래할지도 모르는 무력충돌에 자신이 휘말려 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는 벌써 이러한 무술경기의 전개가 바로 심각한 무력대결의 시발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고 자신이 그 속에 끼어들어 엄청난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술경기 불참을 어떤 고귀한 덕성과 결부시키는 해석은 조신해야 할 것이다. 위험을 의식한 왕비 <크림힐트>가 도움을 간청할 때도 <디트리히>의 거절이유는 다분히 자기분위적이고 이해타산적이라, 거기에서 어떤 윤리적 타당성이나 차원높은 미덕을 추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디트리히>의 대답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자기로서는 부르군드 영웅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일이 없으니 하등의 싸움 이유가 없으며 그들의 생명을 노리면서 원수를 갚으려는 왕비의 의도는 정직하지가 못하다고 오히려 힐책까지 한다(1901ff. 참고). 이러한 극히 타산적이고도 의리없는 그의 반응은 후에 <뉴에디거>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도 부하들에게 그의 원수를 갚으려는 무력행사를 금지시키는 장면에서나 <하겐>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해되는 <엣펠>왕의 아들에 대한 복수는 추호도 개의치 않는 메시지도 나타난다. <엣펠>과 <크림힐트>가 사살되었으리라는 소문을 접했을 때에도(2236ff.) 그는 흥분하기는 커녕 부하들의 울분과 분노를 오히려 무마시켜서 격정적 반응을 저지시키게 되는데 이와같은 행동을 두고, 이성적 판단에 의한 신중함 처신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크림힐트>의 복수의지를 근본적으로 백안시하였고 또한 실내에서 벌어진 싸움에서의 퇴진을 허용받았는데 대해서 화평으로 보답하겠다고는 전서에도 불구하고(1992, 4; 2238, 4; 2312 참고) <힐테브란트>를 제외한 부하들이 모두 전사하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부르군드의 두 용장에 맞서 <디트리히> 자신이 직접 결전에 임하고 마

20) 이 표현은 포로가 되어 <크림힐트>앞에 끌려 나온 <하겐>의 입에서도 튀어 나오는데(2371, 4)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하겠다.

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싸움에서 지칠대로 지쳐버린 <하겐>과 <군더>에 대항하는 막강한 <디트리히>의 용전은 공정성을 잃고 있으며 영웅적 용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원수 <하겐>의 손에 아들마저 잃어버린 <크림힐트>의 절망은 한이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명만은 저버리지 않겠다고 <디트리히>에게 구원의 손길을 간청할 때에도 그의 대답은 야속하기만 하다 :

1984 „Wie sol ich iu gehelfen,“ sprach her Dietrich,
 „edeliu küneginne? nu sorge ich umbe mich.
 ez sint sô sêre erzürnet die Guntheres man,
 daz ich an disen ziten gefriden niemen enkan.“
 (“어떻게 내 그대 도와준단 받으오, 귀하신 왕비여?” 하고
 디트리히 장수는 말했다. “내 스스로도 위협에 처해 있지 않소.
 군더의 휘하가 저렇게 분노하고 있으니, 이 시절에서는 내
 아부도 싸움을 저지시킬 수가 없대오”)

그러나 끈질긴 <크림힐트>의 간청에 못이겨 <디트리히>는 위기극복시도를 약속하고 또 거기에 준해 행동할 따름이다(1985; 1986; 1995ff. 참고). 그러니까 <엠펠>과 <크림힐트>의 생명구조는 <디트리히> 개인의 자발적인 역작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르군드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복인된채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르군드족과 흉노족의 양 진영간에 이미 벌어진 무력충돌을 제지하기는 커녕 자기와 자신의 휘하만을 혈투의 와중에서 되겨시키게 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방관하는 듯한 행동은 막강한 <디트리히>의 용맹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류에디거>처럼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적 갈등도 느끼지 않는다. 군신간의 책무와 인륜의 도리 사이에서 무한히 고뇌하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에 나서게 되는 <류에디거>에 비하면 <디트리히>는 매우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덕망의 인물도 아니요 더구나 이타주의적 기독교정신을 실천하는 남다른 헌신주의자도 아니다. 그의 소극적 행동은 다분히 이기적이며 처음부터 평화적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절망적이 된 <류에디거>가 혈전개입에 앞서서 <디트리히>에게 싸움의 제지를 위한 중재역활수행을 의뢰했을 때에도 “<엠펠>의 분부가 없는 한 자신은 그 문제에 관여할 수 없노”라고(2137 참고) 잘라서 말함으로써 <류에디거>의 운명에 좋지부름 적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그는 분쟁의 억제나 중재역활을 담당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피투성이가 된 <힐테브란트>가 적진에서 빠져나와 <디트리히>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반응은 매우 냉정하다. <하겐>의 칼에 상처를 입은 <힐테브란트>에게 그는 자신이 보장한 화평을 깨뜨린 자, 죽음을 당해 마땅하다고 오히려 힐책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2312 참고). <류에디거>의 죽음을 보고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싸움에 뛰어들어 부상을 당한 <힐테브란트>에게 일말의 동정은커녕 자신의 분쟁개입 명령을 저버린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따지면서 추상같이 힐난하는 <디트리히>의 대정한 행동을 한편 다른 각도에서 음미해 본다면, 바로 여기에 게르만 민족의 영웅호걸들

이 급과옥조로 만드는 신의와 총정, 명예와 의리를 신봉하는 철칙같은 것의 편린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²¹⁾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개인적 명예나 의리를 더 중시하는 의식에서 생겨나기에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수많은 휘하의 병졸들을 잃은데 대한 그의 슬픔도 첫째로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의 회복이 가망없게 된 처지에 대한 것이 주종이고 그 죽음을 당한 당사자에 대한 슬픔은 부차적이다(2319ff. 참고).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을 지실하고 있기에 자기 휘하의 죽음을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운명과 인과관계에 놓고 있는 것이다.²²⁾ 고향을 떠나 망명의 신세가 된 그가 언젠가는 다시 고향을 되찾아야 할 운명의 동참자를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슬플 따름인 것이다 :

2322, 4 „wer sol mir danne helfen in der Amelunge lant?“

(누가 이제 아벨룽겐의 땅에서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권익이 망실될때 대한 보복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자, 지금까지 고수한 문쟁불개입의 신조는 허물어지고 야속한 것은 <군터>와 <하겐>의 저주스러운 용맹뿐이다 :

2329 In leitlichen sorgen sprach dô Dietrich:

„wie habt ir sô geworben, Gunther, künech rich,

wider mich ellenden? waz het ich iu getân?

alles mines trôstes des bin ich cine bestân.

(고통스러운 변민에 잠겨 디트리히 말하노니 :

막강하신, 군터왕이시여, 그대 어찌 망명객 나에게

그릴 수가 있으이까? 내 그대에게 무슨 낫할 짓을 했나이까?

이젠 나 정말 외로이, 신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네.)

이처럼 그의 한탄은 방어력 소멸에 대한 것이지 휘하의 수없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의 슬픔은 홀로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짊어져야 할 자신의 신세타령이 일차적이요 그의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이차적이다(2332 참고). 결투의 현장에서 그는 <군터>에게 지금까지 지지른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써 그와 <하겐>이 인질로서 자발적으로 투항할 것을 권유한다.²³⁾ 이것의 댓가로 그는 그들을 흉노병사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약속

21) 그와 같은 냉혹함(Härte)은 *Rabenschlacht*에서 <엘잔>(Elsan)의 목을 손수 잘라머리는 <디트리히-상>에도 부합된다(*Rabenschlacht*, in: Deutsches Heldenbuch, 2. Teil, Zürich 1967, Str. 1120 f. 참고)

22) 부회의 손실은 바로 자신의 왕국을 잃는거나 다름없다고 해석하기에 <디트리히>의 마음은 더욱 아픈 것이다. 이와같은 논리는 그 뿌리가 오래된 순수 게르만적이며 *Rabenschlacht*에서도 목격된다(W. Mohr, Dietrich von Bern, in: ZfdA 80 (1944) S. 129ff. 참고). Mohr는 「니벨룽겐의 노래」의 디트리히이야기는 *Rabenschlacht*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특히 *Tod der Etzelsöhne* 부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Mohr, a.a.O., S. 132 참고)

23) 대체로 이러한 인질제안이나 투항권유는 중세 기사문학에서 자주 복제되는 장면이다. 명망있는 상대자를 제압하여 무장해제시켜서 생명을 보장해 주는 댓가로 기사의 명예스러운 행적을 궁성

하지만 <하겐>은 무장한 용사로서 투쟁의지가 살아 있는 한 결코 비겁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기개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자 <디트리히>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 두 명장들이 순순히 항복할 경우 자신이 직접 그들의 귀향을 호위하겠노라고 제안하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마는데 그래서 끝내 실력행사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적대관계가 <크림힐트> 내지 흉노진영과 부르군드진영간에 설정된 구성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들어내고 있는 감마저 있다. 그러니까 <디트리히>가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이해관계, 즉 귀향의 꿈이 부하들의 몰살로 깨어졌다는 실의와 함께 자신의 존재까지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자기방어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크림힐트>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당파적 행위는 아닐 것이다(2336ff.; 2339ff. 참고). 인질이나 투항의 반대급부로 제시하는 <디트리히>의 조건들은 흉노왕 <옛젤>의 강성에서 식재노릇을 하는 자신의 처지로 볼 때 배운망덕도 이만저만이 아니며 부르군드측과는 원수의 관계에 있는 왕비 <크림힐트>의 복수의지를 고려할 때 이 의지에 <디트리히> 자신이 방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니 이는 엄청난 태도표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절전은 <디트리히>의 승리로 끝났고 포로가 된 <하겐>은 <크림힐트>앞에 끌려나오게 된다:

2355 Dō sprach der herre Dietrich: „ir sult in lân genesen,
edeliu küneginne und mac daz nōch gewesen,
wie wol er iuch ergetzet daz er iu hāt getān!
er ensol des niht engelten, daz ir in scht gebunden stān.“

(그 때 용장 디트리히 말했나니: “고귀한 왕비시여, 저자의 목숨은 살려 주어야겠오이다. 그리하던 그자 당신께 입힌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치루게 되겠지요. 그자 이제 결박당한 채로 당신앞에서 있으니 죽음을 당해서는 안되겠오이다.”)

이와 같은 <디트리히>의 판단은 너무 소박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숙적들의 만남을 너무나 경시한 구분별한 배역안배였었다.²⁵⁾ 자신의 명예회복은 적을 결박시켰다는 자체로 이루어졌

에 보고하는 전령사로 만드는 것은 기사들이 추구하는 명성축적의 지름길인 것이다. 이러한 중세 기사세계의 관습적 전통의 편린이 이 장면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디트리히>가 두 명장들의 도덕적 수련과 윤리적 덕성을 너무 과소평가했는지 그의 인질요구나 투항권유는 반향없는 왜침에 그치고 만다.

24) 이때 <디트리히>는 한때 <지그프리트>가 휘둘렀던 무서운 칼 *Balmung*을 발견하고 섬뜩한 공포를 느끼지만 (2350), 이미 지쳐버린 <하겐>은 더 이상 그 위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Wormser Rosengarten*의 영향이 반영되어 <지그프리트>와 <디트리히>의 적대관계의 잔재가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Thidrekssaga*에서는 상대자의 칼 *Mimung*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Sigurd*인데 「니벨룽겐의 노래」에서는 반대로 그 상황이 역으로 설정된 감마저 든다.

25) W. Schröder, *Nibelungenlied-Studien*, Stuttgart 1968, S. 30: „Dietrich gibt seiner Zuversicht Ausdruck, daß Hagen jetzt zur Wiedergutmachung von Kriemhilds Herzeleide bereit sein werde (ergetzet 2355, 3). Das ist, wie diese wohl weiß, eine seiner typischen Fehleinschätzungen.“ 이러한 Schröder의 해석과는 반대로 Nagel같은 학자는 <디트리히>의 능력을 그 역으

으나 처형하지 않고 포로로 만들어 그들의 목숨을 언명시켜 줄듯한 그의 행동 이면으로부터 어떤 기독교적 인도주의적 동기를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고귀한 신분의 왕을 결박하는 그 자체 이미 긍정관습과 기사정신에 위배되지만(2361, 2 참고), 적들에 의한 저격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포로를 직접 처치하지 않고 <크립힐트>에게 압송하는 것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철저한 타산에서 생겨난 이기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평생(26년간; 1142, 1390 참고)을 두고 이 순간만을 기대하면서 복수욕을 불태워온 <크립힐트>에게 <디트리히>의 권위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포로취급법」같은 관습은 구속성을 잃는 것이다. <크립힐트>는 사실 내심으로부터 피룬 나눈 두 원수들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의 요구조건은 빼앗긴 니벨룽겐의 보물 반환이 우선적이었으니까(2367ff. 참고). 그러나 이 요구는 수락될 수가 없었다:

2368 Dô sprach der grimme Hagene: „diu rede ist gar verlorn,
vil edeliu küneginne. jâ hân ich des gesworn,
daz ich den hort iht zeige die wile daz si leben,
deheiner minner herren, sô sol ich in niemene geben.“
(그때 무서운 하젠 대답하였으니: “고귀한 왕비시여,
실없는 말씀 삼가하시오. 정녕 나 맹세했나니,
내가 보시는 이분들께서 한분이라도 살아 세시는 한, 그 보물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리다.”)

이러한 <하젠>의 도전에 대항하는 그녀의 각오(“Ich bringez an ein ende” 2369, 1) 또한 비장하여, <군터>의 복은 순간적으로 잠려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혈육의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녀의 운명도 기구하기 그지없다. 끝내 <지그프리트>의 칼을 움켜쥐고 <하젠>의 목을 손수 자르는 엄청난 비극의 여인이 되는 동시에 <힐테브란트>에 의해 스스로 처형당하고마는 참극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처럼 길잡을 수 없이 이어지는 긴장의 현장에서 발뺌을 한 <디트리히>의 행동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두 포로가 하필이면 왜 <크립힐트>에게 이첩되었는지? 이러한 불투명한 대목들은 주어진 소재의 구속성을 탈피 못한 작가의 무능에 이유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서 그렇게도 횡난을 만난 <크립힐트>의 복수의지를 정당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디트리히>의 포로들이 <크립힐트>에게 이첩되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그러니까 「니벨룽겐의 노래」에서 펼쳐지는 비극은 이미 소재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비극의 절정에서 희미하게 자취를 감추어 방관자 역할을 하는 <디트리히>의 거취는 시대적 산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로 평가하고 있다; 즉 그는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볼 줄 아는 탁월함(„Überlegenheit durchschauenden Wissens.“)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B. Nagel, Das Dietrichbild, S. 33 참고)

26) W. Schröder, a.a.O., S. 161ff. 참고

다.²⁷⁾ 그러나 「니벨룽겐의 노래」의 작가는 시대감각에 맞추어 <크림힐트>의 처형을 <힐데브란트>로 하여금 수행케 함으로써 <디트리히>의 영웅적 신분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각색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비극적 구성과 배치가 모두 완성된 후의 <디트리히> 행동이 극히 소극적이 되어버린 이유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비극의 파국을 약간이라도 모면시킬 수 있었던 위치에서 그만 물러나 버린다는 것은 역사의 갈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이는 다른 여러 디트리히-서사문학에서처럼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만 물러서 버리는 비운의 주인공 바로 그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²⁸⁾ 이처럼 신화적 의상과 마력을 지닌 그가 끊임없이 전승가도를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등장무대에서 그만 퇴장해 버리는 운명의 주인공이 바로 <디트리히>의 한 문학적 프로파일인데 이러한 전통적 제약이 「니벨룽겐의 노래」의 작가의 디트리히-상 구현에 있어서도 주효했는지 모른다. 이와같은 인물실정을 티무니없이 새로운 이념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과대평가하거나 어마어마한 어떤 세계관의 너울을 썩어나면, 이는 역사적 안목을 잃는 근시안적 해석의 오류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V.

어쨌든 「니벨룽겐의 노래」를 전체적으로 볼 때 독자의 주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은 역시 <디트리히>보다는 공포와 전율의 주인공 <하겐>과 <크림힐트>임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겐>의 의연함과 냉정성은 흥분할 줄 모르며 격정의 동요를 초월한다. <지그프리트>의 암살을 계획할 때에도, <지그프리트>가 지니고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체적 부위를 보호해 주겠다는 구실로 <크림힐트>로 하여금 그곳을 표시하게끔 만드는 그의 치밀성, 엄청난 보물의 상속인이 되어 그 부귀의 권능을 과시하는 <크림힐트>로부터 「니벨룽겐의 보물」을 빼앗아 라인강에 매장시켜버리는 과단성, <크림힐트>의 초대로 <옛펠>의 땅에 당도하고 나서도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활보함으로써 긴장된 위기를 예견하고 방어할 줄 아는 그의 투시력, 급기야 <크림힐트>로 하여금 <칸터>의 목숨까지 앗아 버리게 함으로써 그녀의 비극을 극도로 몰고가는 냉혹한 비정에 이르기까지 <하겐>이 지닌 냉엄한 과단성과 기만에 충일하는 증오는 그 농도에 있어서 <크림힐트>의 불타는 복수욕을

27) Heusler에 의하면 「부르군드족의 멸망」(Der Burgundenuntergang)이라는 원래 프랑켄족의 영웅가의 바이에른적 변형가와 *Ältere Not*(「니벨룽겐의 노래」의 선행문학으로 추정되는 서사시) 속에서의 <디트리히>는 *Thidrekssaga*에서와 마찬가지로 <힐데브란트>가 맡고 있는 <크림힐트> 처형이란 과업을 스스로 맡고 있었으리라고 가정한다(A. Heusler, *Nibelungensage und Nibelungenlied*, S. 50ff. 참고)

28) B. Horacek, *Der Charakter Dietrichs von Bern in Nibelungenlied*, S. 325ff. 참고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크림힐트〉 역시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복수의지를 꺾지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탱해 내는 강인함은 놀라운 정도이다. 그녀가 처리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무력행사도 결국은 〈하겐〉의 모멸에 찬 조소와 증오에 불타는 도전으로 만미암은 것이며 아무도 이와같은 엄청난 비극의 동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녀 스스로 젊어지게 될 운명의 집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겐〉에게 만감이 어린 칼 발뺌을 휘두름으로써 잃어버린 영화를 되찾고 한뼉의 원한을 풀어 버리고자 했던 것인데 이를 두고 그릇된 판단이 자아낸 흥분의 발작이었다고 일소에 부치기에는 박진감이 너무나 진지하고 극적 연출이 너무나 장연하다.

이와같이 중심인물 〈하겐〉과 〈크림힐트〉에 비교해 볼 때 〈디트리히〉는 그 성격적 특징이 유동적이라 인물의 전모가 복잡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우리들의 분석을 종합해 본다면 「니벨룽겐의 노래」의 작가가 그린 디트리히-인물상은 이질적 요소들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다가 작품의 구상 이전의 구비전승과정에서 생긴 변용들을 또한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²⁹⁾ 그래서 문학의 전래사의 제반단계에서 생성된 그러한 개별특징들을 나열해 본다면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원초적 의상으로서의 신화적 요소다 하겠다. 이는 〈디트리히〉가 초인적 힘과 목소리의 소유자임을 강조하는 대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는데, 이는 *Rabenschlacht*의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두번째의 구성요소로서 들 수 있는 것은 „*vālandinne*“ (1748, 4)라던가 „*tiuvel*“ (1993, 4; 2245, 2)같은 어휘들이 언상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어두운 지옥관(*Höllenvorstellung*)의 편린들이다. 이것들은 〈테오테리히〉 대제가 지옥행을 면치 못했다고 혹평하는 그의 반대자들이 만들어 낸 종교적 기록 내지 역사적 사료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고트족의 영주 〈디트리히〉의 특성으로서 세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입속한 심전을 가능하면 회피하려는 듯한 그의 모습이다. 그의 참전은 회피가 더이상 불가능했을 때만 이루어지게 되는지라 비굴한 인상마저 주게 된다. 이처럼 싸움을 주저하는 모습은 특히 *Eckenlied*와 *Fluchtpos*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강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면은 *Rabenschlacht*에서 볼 수 있다. 「니벨룽겐의 노래」에서의 〈디트리히〉는 이와같은 서로 모순되는 듯한 양상을 다 지니고 있지만 약간 퇴색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처럼 옛 전설의 잔재들은 개별적 모티프에서만 그 잔흔을 더듬을 수 있을 뿐이다. 역시 〈디트리히〉의 역사적 영웅시사문학의 유물이라고 여겨지는, 결정적 순간에 그만 승리를 놓치고 마는 정경은 고트족이 베스비우스 화산에서 멸망해 버렸다는 종교사적 유산에 근거한 역사적 분위기의 반영일 수도 있다. 이 분위기는 결국 그 민족의 대변자 〈디트리히〉 개인과 연관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테오테리히〉가 〈오도아케르〉를 제거한 배신행위가 “지그프리트의 상처는 그대로 두세”(2716; „*Die Sifrides wunden lāzen wir*

29) O. Höfler, *Theoderich der Große und sein Bild in der Sage*, Wien 1975, S.1 참고

nu stôn“)하면서 문제삼지 말자는 <디트리히>의 행동 속에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하는 점을 차치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다³⁰⁾ :

첫째, 초인적 힘의 과시, 실질을 주저하는 태도, 일단 약속한 신의를 지키다가는 끝내 파기해 버리고 마는 자기본위적 행동, 파국의 직전에 울면서 물러가는 이해할 수 없는 처신 그리하여 상대를 도로로 만들어 놓고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못하여 마치 승리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듯한 종말 등등, 이러한 요인때문에 이 인물이 지니고 있는 영웅적 요소는 “감가소각”되어 <디트리히>는 중세 독문학상에 나타난 몇몇되지 않는 문제성을 안고 있는 인물 중의 한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크림힐트>와 <엣켈>에게 대하는 <디트리히>의 불투명하고도 남독하기 곤란한 태도, <크림힐트>와 부르군드족간의 적대관계에서 두 번이나 그 전선을 교체하면서 편파적인 듯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그의 처신, 자신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반면에 신의 불 맹종함으로써 인륜의 당위성을 저버리는 일들은 기독교적 모범상이 될 수 있는 빛나는 광휘를 흐리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게르만적 영웅상이나 기독교적 기사상으로 전주어 보더라도 결코 그러한 인물상의 이상형으로 구상된 것이 아니란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로 배치되는 이질적인 성격상의 특징들은 역사와 신화, 전설과 문학에서 유래하는 많은 모티브들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이 이제는 분명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디트리히>의 행동은 자발적인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기 보다는 이미 유통적으로 서술되어진 문학전통과 주어진 역사적 사실간의 긴장관계에서 그때 그때마다 각기 달리 기술될 수 있는 타의적 의식에 다분히 구애된 산물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도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문학해석가마다 디트리히 인물을 보는 관점이 나르고 그 평가도 판넨적인 면에서부터 사회제도적 해석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물론 「니벨룽겐의 노래」로 주어진 문학전통을 새삼스럽게 재구성하면서 집대성한 익명의 작가가 창의적으로 수용하려고는 했겠지만, 이질적 요인에 무관할 수 없었던 <디트리히>의 행동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상황에 따라 부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암이 확인하고 윤곽이 뚜렷한 인물상으로 점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 고찰의 결과인 것이다.

문학의 해석이 학문적 객관성을 찾으려면 과학적 방법으로 명증한 성분들만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되도록이면 논외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생성자체가 이미 긴 역사적 흐름속에서 이루어져 불변의 결정체로 고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정과 추측도 배제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또한 문학의 속명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다면 학문하는 보람이라도 느낄 것이다.

30) B. Horacek, a.a.O., S. 329 참고

參考文獻(Literaturverzeichnis)

I. 本文(Texte):

- Das Nibelungenlied. Nach d. Ausgabe von K. Bartsch, hrsg. v. H. de Boor, 20. Aufl. Wiesbaden 1972(=Deutsche Klassiker des MAs., Bd. 3)
- Das Nibelungenlied. Mittelhochdeutscher Text u. Übertragung. Hrsg., übers. u. mit einem Anhang vers. v. H. Brackert, 2 Bde. 4. Aufl. Frankfurt/M 1976(=Fischer-Bücherei, BdW, Nr. 6038/39)
- Deutsches Heldenbuch, 5 Bde., hrsg. v. O. Jänicke, E. Martin, A. Amelung u. J. Zupitza, Berlin 1860-70 (Nachdruck: 1963-68)
- Thirekssaga: Die Geschichte Thidreks von Bern, übertr. v. Fine Erichsen, Jena 1924(=Slg. Thule, Bd. 22), Neuausgabe m. Anhang u. Nachwort v. Helmut Voigt, Düsseldorf-Köln 1967
- Dietrichs Flucht und Rabenschlacht: Ausgabe; E. Martin, Deutsches Heldenbuch, Bd. II., Berlin 1866 (Neudruck Zürich 1967)

II. 二次文獻(Sekundärliteratur):

- S. Beyschlag, Das Motiv der Macht bei Siegfrieds Tod, in: Zur germanisch-deutschen Heldensage, hrsg. v. K. Hauck, Darmstadt 1965(=WdF 14), S.195-213
- H. de Boor, Die deutsche Literatur im späten Mittelalter. Zerfall und Neubeginn, I. Teil, München 1962, S.157-169
- K. Hauck (Hrsg.), Zur germanisch-deutschen Heldensage, Darmstadt 1965(=WdF, Bd. 14)
- A. Heusler, Nibelungensage und Nibelungenlied. Die Stoffgeschichte des deutschen Heldenepos, Dortmund 31929, (=6. Aufl. Nachdruck WBG. Darmstadt 1973)
- B. Horacek, Der Charakter Dietrichs von Bern im Nibelungenlied, in: Fg. f. Otto Höfler zum 75. Geburtstag, Wien 1976, S.297-336
- O. Höfler, Theoderich der Große und sein Bild in der Sage, Sitzungsberichte der Wissenschaften, Wien 1975
- K.-H. Ihlenburg, Das Nibelungenlied. Problem und Gehalt, Berlin (Ost) 1969
- H. Kuhn, Der Teufel im Nibelungenlied. Zu Gunthers und Kriemhilds Tod, in: ZfdA 94 (1965) S.280-306
- E. Kühebacher (Hrsg.), Deutsche Heldenepik in Tirol. König Laurin und Dietrich von

Bern in der Dichtung des Mittelalters. Beiträge der Neustifter Tagung 1977 des Südtiroler Kulturinstitutes, Bozen 1979

W. Mohr, Dietrich von Bern, in: ZfdA 80(1944) S.117-155

B. Nagel, Das Dietrichbild des Nibelungenliedes, in: ZfdPh 78(1959) S.258-268; 79(1960) S.28-57

B. Nagel, Das Nibelungenlied, Stoff-Form-Ethos, Frankfurt/M 21970

F. Panzer, Das Nibelungenlied. Entstehung und Gestalt, Stuttgart 1955

G. Plötzeneder, Die Gestalt Dietrichs von Bern in der deutschen Dichtung und Sage des frühen und hohen Mittelalters, Diss. (masch.) Innsbruck 1955(1957)

H. Schneider, Deutsche Heldensage, bearbeitet von R. Wisniewski, Berlin 21964 (=Slg. Göschen Bd. 32)

W. Schröder, Nibelungen-Studien, Stuttgart 1968

Klaus v. See, Germanische Heldensage. Stoffe, Probleme, Methoden, Wiesbaden 21981

J. Splett, Rüdiger von Bechelaren. Studien zum zweiten Teil des Nibelungenliedes, Heidelberg 1968

G. Weber, Das Nibelungenlied, Problem und Idee, Stuttgart 1963

《Zusammenfassung》

Die Heldensagenfigur "Dietrich von Bern" im Nibelungenlied *

Tschang-Un Hur

Diese Studie behandelt hauptsächlich die literarische Darstellung und Stilisierung der Figur *Dietrich von Bern* im Nibelungenlied im Hinblick auf Mythen und Sagen, die sich mit literarischen Überlieferungen zusammenhängen.

Dietrich von Bern, der in der Geschichte als christlicher Friedensherrscher *Theoderich der Große* bekannt und in der Dichtung meistens als edler Königsflüchtling dargestellt ist, stammte ursprünglich aus der Amaler-Sippe, lebte von 454 bis 526 und wurde seit 471 Ostgotenkönig. Seine bedeutungsvolle Eroberung Italiens erfolgte durch den Sieg über Odoaker bei Verona. Diese geschichtlichen Tatsachen um Theoderich bildeten im Laufe der Zeit den Mittelpunkt der Gotensagen, die in Deutschland völlig heimisch wurden, indem sich eine ganze Reihe von Epen zyklisch um diese Gestalt zusammenschloß.

Im Nibelungenlied taucht er aber als Flüchtlingskönig im Hunnenhof von Etzel auf, d.h. nur im zweiten Teil des *Burgundenuntergangs*. Hier spielt er eine im entscheidenden Moment der Handlung unentbehrliche Rolle. Im großen und ganzen hält er jedoch in den kriegerischen Auseinandersetzungen der beiden Parteien (*Hagen und Kriemhild*) extreme Stellungnahme zurück, zögert mit dem kämpferischen Eingriff bis zum letzten Moment, in dem er schließlich Gunther und Hagen überwältigt und Kriemhild noch um Gnade für die Besiegten bittet. Auf Grund solcher Kriterien, d.h. seiner Distanzierung von Kriemhilds Racheabsicht, Zurückhaltung von der Kriegseinmischung, vor allem seiner versöhnlichen Gesinnung gegenüber den Besiegten wird er oft als christlich-ritterliche Idealfigur oder als heroisch-heldisches Vorbild bewertet. Es ist aber anhand unserer Textanalyse deutlich geworden, daß wesentliche Verhaltensweisen und Äußerungen *Dietrichs von Bern* im Nibelungenlied einen widersprüchlichen Charakter aufweisen. Daraus läßt sich leicht schließen, daß eine einheitliche Konzeption dieser Gestalt schwer durchführbar gewesen sein muß, da die unstimrigen Zügen des Dietrichcharakters meistens von Motiven aus der Geschichte, dem Mythos, der Sage und Literatur abhängig sind.

Im Grunde handelt es sich in dieser Abhandlung darum, weitgehend die heterogene Charakteristik der Figurendarstellung hervorzuheben und ihre potenzielle Interdependenz zu betonen.

* Diese Arbeit konnte während meiner Forschungsaufenthalt in Deutschland 1980/81 fertiggestellt werden, die die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großzügig finanziert hat.